<p>1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저출산·고령화 대응 위한 새로운 여성가족패널 방향 탐색 필요</p> <hr/> <p>- 한국여성정책연구원, 「2023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엄」 개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최신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, 가족변동 전망에 따른 새로운 패널 구축 방향을 조망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 ○ 웨이브를 활용한 심층연구 및 가족변동 전망에 대응한 새로운 패널 구축관련 프로그램 진행 	<p>[출처]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</p> <p>https://www.kwdi.re.kr/plaza/bodoView.do?p=1&idx=131353</p> <p>2023. 12. 7.</p>
<p>2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근로자의 행복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‘가족친화인증’</p> <hr/> <p>- 2023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</p> <p>- 대기업 7곳, 중소기업 3곳 가족친화 모범 ‘최고기업’ 신규 지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올해 2,476개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하였으며 이중 2,183개 기업이 인증기준을 통과 ○ 2023년 기준 2022년 대비 496개 증가, 중소기업 4,110개로 전체인증기업의 69.5%를 차지 	<p>[출처] 여성가족부 보도자료</p> <p>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606047&pageIndex=2&repCodeType=&repCode=&startDate=2022-12-27&endDate=2023-12-27&srchWord=%EC%97%AC%EC%84%B1%EB%AC%B8%ED%99%94&period=year</p> <p>2023. 12. 18.</p>
<p>3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(잠정)</p>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대비 14.2% 증가한 19만 9,976명임 ○ 부(父)는 35~39세(39.7%), 모(母)는 30~34세(40.8%)가 가장 많음 ○ 부(父)와 모(母)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가장 높음 ○ 부(父)는 제조업(22.6%)에, 모(母)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19.1%)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등 	<p>[출처] 통계청 보도자료</p> <p>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606545&pageIndex=1&repCodeType=&repCode=&startDate=2022-12-22&endDate=2023-12-22&srchWord=%EC%97%AC%EC%84%B1%EB%AC%B8%ED%99%94&period=year</p> <p>2023. 12. 20.</p>
<p>4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성가족부, 2024년도 예산 1조 7,234억 원 확정</p> <hr/> <p>- 2024년 예산 전년대비 9.9%(1,556억 원) 증가, 국회 본회의 의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○ 성폭력·가정폭력·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	<p>[출처] 여성가족부 보도자료</p> <p>https://www.mogef.go.kr/nw/rpd/nw_rpd_s001d.do?mid=news405&bbtSn=709719</p> <p>2023. 12. 21.</p>
<p>5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양하게, 활발하게, 함께 누린 2023 문화·여가활동</p> <hr/> <p>-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, 국민여가활동조사, 근로자휴가조사 결과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예술 관람률은 58.6%로 전년 대비 0.5%포인트 상승해 회복추세 지속, 적극적인 형태의 행사 참여율과 교육률 상승 ○ ‘직접 관람’ 58.6%, ‘참여’ 4.8%, ‘교육’ 8.5% 등 다양한 지표에서 코로나19 이후 문화누림 회복추세 확인 	<p>[출처]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</p> <p>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607389&pageIndex=1&repCodeType=&repCode=&startDate=2022-12-27&endDate=2023-12-27&srchWord=%EB%AC%B8%ED%99%94%EC%98%88%EC%88%A0&period=year</p> <p>2023. 12. 26.</p>